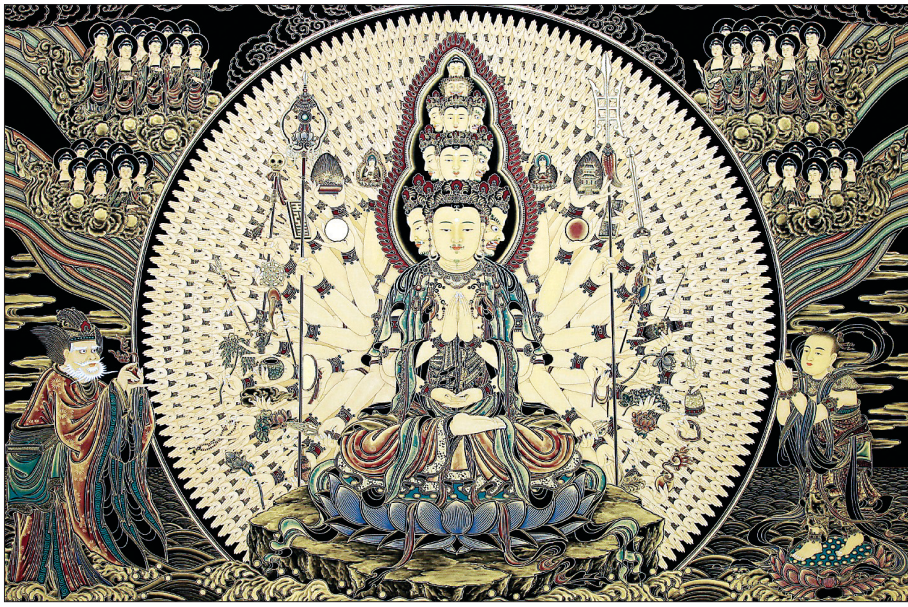




강순형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의 '늘 한마음'



불화가 전연호 씨의 '금니천수 관음도'



한경혜 작가의 '물고기의 단풍놀이'

가을 불교 전시 3色 3題

'무념무상' 시간 포착하고 싶다면 사각의 佛畵 앞에 서보자

제45회 한국불교미술협회전 '동행'

10월 20일까지 인사동 아라아트 5층서

한국불교미술협회는 불교미술의 전통을 이어가고 올바른 현대화를 모색한다는 취지로 1980년에 결성됐다.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역량 있는 불교미술 작가와 불교문화재 전문가들이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현재 까지 꾸준히 전시를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동국대 불교대학에 불교미술전공이 개설된 지 45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이다.

25회를 맞은 이번 전시회는 '동행'이라는 주제로 10월 20일까지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 5층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협회 이사장인 문명대 명예교수, 동국대 불교미술전공 지도교수이자 협회 회장인 김창균 교수, 국립문화재연구소 강순형 소장 등 학자들 비롯해 불교미술 작품활동을 활발히 하는 이상배·박경귀 작가 등 60여명이 120여점을 출품해 예술성 높은 불교미술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려한 민화적 색채가 웃음을 자아내게 만드는 김창균 교수의 '존자도', 여백의 미가 강조된 강순형 소장의 선화 '늘 한마음', 문드린 안의 색채 구성을 연상케 하는 김선태 작가의 '무제' 등은 눈여겨 볼만하다.

박경귀 작가 등 60여 명 120여 점 선화 '한가정 한 佛모시기'... '평 옥선전'

이번 전시회는 선·후배간의 교류 및 후배사랑, 현대인들과의 소통이라는 특별한 목적이래 개최하는 만큼 좋은 의미를 남기고자 다양한 형식으로 기획한 것이 특징이다.

처음부터 협회서 내세우는 '한 가정 한 佛 모시기' 목표를 보다 적극 실행하고, 대중 누구든 부담 없이 품격 있는 불교미술작품을 만나게 하고자 '평옥선전'을 준비했다. 이를 통해 얻어온 수익금 일부는 '동국대 불교미술전공 후배사랑 장학금'으로 다시 회향할 예정이다. 한국불교미술협회 회장 김창균 교수는 "우리 한국불교미술협회는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사회에 어울리는 불교미술의 현대화라는 새로운 방향 모색하고 있다"며 "그간 회원들의 노고와 담긴 작품을 모아 전시를 열게 되어 기쁘다"며 소감을 전한다. 한편 한국불교미술협회서 활동하는 작가들은 동국대 출신 작가들을 주축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불교미술분야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김성열 김석근 김수정 고승희 권지은 박철중 양선희 등 한국불교미술계에 영향을 주는 작가들과, 문화재 일선 현장의 정인선 이정선 김선희 우지성 등 보수기술자와 단청기술자들, 또한 불교계 문화 및 문화재 연구원 등 불교미술 전반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02)733-1981

제5회 '불화이야기' 대구 전시회

10월 18일까지 문예회관, 25일까지 대구 불광사

불화가 전연호 씨가 이끄는 불화가들 모임인 '불화이야기'가 대구서 다섯번째 전시회를 두 번째 걸쳐서 각각 연다. 불화이야기(회장 조인숙)는 10월 18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제 13전시실서 첫 번째 전시를, 19~25일까지 대구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서 제5회 불교미술본문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28명 회원들이 참여해 50여점을 선보인다. 주요 전시 작품은 '석가모니삼존도' (김미경), '보라잔불' (남유정), '지장보살도' (민규리), '선재동자' (손영이), '산신도' (손혜영), '관세음보살' (양순애), '서방광목천왕' (영관 스님), '석가모니삼존도' (이경목), '금니 홍령 증장전왕' (이금순), '관음 42수 연화, 금령, 보인' (이인숙), '불(佛) 최명훈', '감로명화' (최우경), '사천왕' (추복조), '동진보살' (전진진), '조양명화' (전진봉), '뫼다고형상' (조인숙) 등이다.

28명 회원 참여, 전통 및 현대불화 50여 점 18년째 활동... 2006년부터 2년 마다 전시

또한 전연호 씨의 '금니 천수관음도'를 비롯해 김성희의 '석가탄생도', 조해종의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최윤석의 '문수 보현보살도', 이문희의 '무량정사 묘관스님 진영', 장부영의 '제석명화', 장은수의 '수월관음도', 권필선의 '산중도', 이승규의 '산중명화', 지용 스님의 '아미타불' 등 기성작가들의 불화작품도 함께 만날 수 있다. 한편 '불화이야기'는 본연(本然) 전연호 선생의 지도 아래 1998년 대구불교방송의 불화교실서 출발,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불화가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불교미술 연구모임인 '불교미술본문도회'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2년 마다 전시회를 열고 있다.

'불화이야기' 조인숙 회장은 "불화를 그리고 싶은 열정을 가진 이들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불화 모임이 어느덧 18년째를 맞고 있다"며 "불화의 창작 과정은 수행으로 이어져 자신의 마음을 닦고 자신의 행복을 일구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소개한다.

전연호 작가도 "예로부터 불화를 그리는 사람을 불모 또는 금어라 칭하며 존경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경배되는 성상을 탄생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산중을 중심으로 불모를 양성했지만 지금은 승속 구분없이 누구라도 불화를 즐길 수 있게 돼 많은 사람들이 불화에 매료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가 불교문화의 뿌리인 불교미술의 대중화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 (053)606-6114, 대구 불광사 (053)792-1353

제8회 불화가 한경혜 展

10월 18일까지 운현궁 기획전시실서

절 수행을 통해 뇌성마비를 극복한 불화가 한경혜씨 전시회가 10월 18일까지 서울 운현궁 기획전시실서 열린다. 이번이 여덟 번째 개인전으로 주제는 '물이 품은 자연'이다. 물과 돌의 작가로 잘 알려진 한씨는 수 년 동안 물에 잠긴 돌을 정성껏 그려왔다. 특히 전통 한지에 수묵담채로 계곡의 물속이나 바닷속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물속 돌의 존재를 부각시킨 수묵담채화 2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 작가 이력을 되짚어보면 불가와와 인연이 깊다. 한 살 때 앓은 뇌성마비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다 일곱 살 때 성철 스님을 만나 3천배로 장애를 이겨내 화공의 길을 걷고 있다.

한 작가는 또한 2004년 절 수행으로 장애를 극복한 이야기를 담은 책 오체투지를 출간해 주목받았고, 2009년 홍익대학교원에서 '동양회화에 나타난 물 표정 연구'로 미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씨는 설악산, 거제도 등 전국 명산과 섬을 찾아다니며 사색한 물과 돌에 얽힌 이야기를 사실주의 기법으로 화면에 되살려낸다. 최근에는 그림에 야생화 이미지를 살짝 끼워넣어 생명의 무한함을 강조한다. 그의 작품에는 돌과 물, 수초 등이 가득하다.

화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으면 실제 물에 잠긴 돌을 보는 듯한 체험을 안겨준다. '교체되는 시간들' '수초 도시' '머무르고 싶은 순간들' '물의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다' 등은 계곡에 고인 물속의 생태를 사실적으로 잡아낸 작품이다. 한국고 고유의 농담과 색채를 표현하면서도 필선과 수묵의 효과를 심분 활용했다. 특히 물에 잠긴 돌과 수초의 자취에서는 동양적인 생명사상을 엿볼 수 있다. 물에 떠 유희하 흘러가는 붉은 단풍잎은 한발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을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잔잔한 물살은 덧없는 인생의 깊이, 맑은 물속 예쁘게 닳은 조약돌 옆에서 물려다니는 물고기떼는 삶의 활력을 준다. 자연에 대한 묘사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기운생동의 필력이 돋보인다. 한 작가는 "시간을 가지고 싶지만 시간은 도저히 손에 잡히지 않고 물처럼 흘러 흘러간다. 바람의 형상은 보이지는 않지만 웃기를 스치고 몸에 부딪히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자신의 작품을 설명한다. (02)766-9090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21주년을 축하합니다.

성종사 대만최대 규모 범종 제작 수출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규모인 8,800관(33 ton) 범종을 제작 수출하였다. 높이 4.82m, 직경 2.89m 중량 33ton(8800관)의 이 초대형 범종은 대만 타이중에 위치한 명선사(明善寺)라는 사찰로부터 2013년 주문 받은 것으로 기존 대만 최대 범종인 25.5ton의 불광산사 범종보다 무려 7.5ton이 무거우며 높이도 50cm나 더 크다.

본 범종의 제작기간은 약 18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종 표면에는 12,129자의 경전과 명선사의 역대 祖師 70명이 정교하게 빼곡히 새겨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사이트 : www.sungjongsas.com / E-MAIL : sungjongsas@hotmail.com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대표 : 범산 원 광 식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聖鐘社 SUNG JONG SA